

전기차株 주목에... 개미들 국내외 2차전지 ETF 매수 열풍

2차전지 종목 중심 ETF 성장세 자산가치 총액 54조2000억 기록 2차전지 K-뉴딜, 올 3724억 매수 서학개미, 미국 ETF도 관심 폭발 아크이노 ETF 1.7억만달러 매수

2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동서를 막론하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오름세를 타며 관련된 ETF를 향한 수요도 커지는 중이다.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세계적 흐름이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도 걸맞는 만큼 2차전지 ETF의 매력도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전지ETF, 순매수·수익률 순위표 점령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ETF 자산가치 총액은 약 54조

<올해 개인 순매수 TOP5 ETF> (억원)

| 종목명 | 순매수액 |
|-----------------------|------|
| KODEX 200선물인버스2X | 4227 |
| TIGER KRX2차전지K-뉴딜 | 3724 |
|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 3566 |
| KODEX 2차전지산업 | 2577 |
| KODEX 인버스 | 1685 |

<올해 개인 수익률 TOP5 ETF> (%)

| 종목명 | 수익률 |
|---------------------|-------|
| TIGER 200 에너지화학레버리지 | 60.14 |
| KODEX 자동차 | 35.60 |
| TIGER KRX2차전지K-뉴딜 | 33.52 |
|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탈 | 30.00 |
| KODEX 2차전지산업 | 29.52 |

/한국거래소

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약 2조2056억원(4.2%) 증가한 수치다.

ETF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는 중이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중심에 섰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전 거래일(5일)까지 3724억원 어치의 TIGER KRX2차전지K-뉴딜 주식을 사들였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4227억원)에 이어 순매수 규모 2위에 해당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3566억원)와 KODEX 2차전지산업(2577억원)이 뒤를 이었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주로 사용되던 ETF의 흐름이 2차전지 테마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수익률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수익률 상위 10위 중 6개가 2차전지 ETF였다. 'KODEX 자동차'가 올해 수익률 35.50%를 기록하며 2차전지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다. 이 상품은 현대차그룹 종목을 대부분 담고 있다.

같은 기간 TIGER KRX2차전지K-뉴딜(33.52%),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탈(30%), KODEX2차전지산업(29.52%) 모두 30% 내외로 치솟으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품 운용을 맡은 서보경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없는 관련 종목들도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며 "해당 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기업의 비중이 높아 대형주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라고 소개했다.

◆서학개미 美 ETF도 눈독

2차전지 ETF의 인기는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서학개미의 마음도 사로잡으며 미국 증시에서도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했던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1억7809만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외주식 전체 순매수액 5위에 해당한다. 미국 액티브 ETF 시장을 30% 이상 점유한 글로벌 투자회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이달 초 기준 테슬라가 9.88%로 구성종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글로벌X리튬ETF도

1억826만달러를 사들였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ETF다. 최근 1년 수익률이 140%를 넘길 정도로 성과가 좋았던 점이 개인의 투자심리를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아이셰어즈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도 9101만달러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블랙록이 운용하는 친환경 ETF로 30개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을 담고 있다.

단기적 투자처로 활용됐던 ETF가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ETF 활용은 적극적인 시장의 상승 동력을 찾는 최근의 투자 흐름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자동차·수소경제테마 등 ETF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담배수출 본격화... 해외매출 고성장 기대

metro 관심종목 KT&G

올 추가수익비율 상당히 저평가 증권업계 목표주가 최대 12만원

해외 담배 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KT&G(케이티엔지)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KT&G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증권업계는 KT&G의 목표주가를 최대 12만원까지 내놓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G는 지난 5일 전 거래일 대비 100원(0.12%) 하락한 8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새해 들어 KT&G 주가는 8만원 초 중반을 오르내리며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매출 고성장을 통한 실적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올해 추가 수익

<KT&G 증권사별 목표주가>

| 증권사 | 목표주가 |
|--------------------------|----------|
| 대신증권 | 12만원 |
| 하이투자증권 | 11만5000원 |
| 신한금융투자 | 11만4000원 |
|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NH투자증권 | 11만원 |
| 한국투자증권 | 10만7000원 |
|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 | 10만3000원 |
| KB증권 | 10만원 |

비율(PER)이 10배도 채 안 되는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주가 부진은 펀더멘탈보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강화에 따른 부정적 언급 및 배당주로서의 상대적 매력 저하 영향이 커 보인다"며 "2020년 주당 배당금을 4800원으로 증액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대신증권은 12만원으로 KT&G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하이투자증권 11만5000원, 신한금융투자 11만4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NH투자증권 11만원, 한국투자증권 10만7000원,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 10만3000원, KB증권 10만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KT&G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KT&G의 매출액은 5조3016억원, 영업이익은 1조48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7.5% 상승했다. 해외 담배 법인을 중심으로 주력 시장인 수출이 본격화됐으며, 수원부지 부동산 분양매출액이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면세 채널 부진이 지속되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KG

C인삼공사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과 미국 등 해외 담배 판매 실적 호조와 부동산 매출 성장에 따라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본업 실적 성장으로 KGC인삼공사의 부진을 상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총수요 하락세와 맞물려 국내 담배 판매 감소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관련 매출도 축소될 전망"이라며 "다만, 기저효과에 따른 KGC인삼공사 실적 개선을 비롯해 중동 지역 수출 정상화 및 미국, 인도네시아 등 법인 유통망 확대로 해외 담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권련형 전자담배 수출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경신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권련형 전자담배(HNB) 판매량은 6억3000만본으로 추정한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 내 침투율은 12.7%로 정체 흐름을 보이나, 시장점유율(M/S)은 36.7%로 지속적인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등 향후 안정적인 현지 시장 침투 및 추가 진출구 확대를 통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영업실적 반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갤러리창' 및 '힐링 프리미엄' 주거상품, 주방을 풍광과 힐링 공간을 겸비한 '다이닝룸'으로 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新 주거 트렌드 반영 특화평면 올인룸 개발

현대엔지니어링이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거상품을 개발하고 저작권 16건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야외 활동의 제한과 언택트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집콕', '홈패', '홈트'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주거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재택근무·재택수업의 확대로 집이 단순 거주 공간에서 취미와 여가, 직장, 교실의 역할까지 겸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업무, 여가, 위생·보건 공간을 한 집에 모두 망라한 '올인룸(All-in-Room)' 평면, 주방을 풍광을 담은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한 '갤러리창' 등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차별화된 특화 주거상품들을 선보였다.

'All-in-Room' 평면은 전용 84㎡ 면적의 주거공간 내 ▲나만의 업무공간 ▲집중 학습 공간 ▲청정 안심 현관 ▲힐링 발코니 등 4가지 특화공간들을 추가해 집 안에서 힐링, 여가, 업무 그리고 교육까지 가능한 전전후 특화평면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설 연휴 앞두고 잠잠한 분양시장

분양캘린더

전국 2곳 977가구 청약 견본주택은 5곳서 개관

설 연휴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잠잠한 모습이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곳에서 총 977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경기 평택에서 '더샵 지지역 센트럴파크(2블록)'가 조합원 부적격 물량 47가구에 대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양주에서는 옥정신도시에 조성되는 '양주 옥정 더원 파크빌리지'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5곳이 개관한다. '더샵 오포센트리체'를 포함한 3곳이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외에 '연산포레 서히스타일스'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조감도

/현대건설

전 방문 예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곳, 계약은 3곳에서 진행된다. 한양건설이 전남 목포시 석

현동 986번지 일원에 짓는 '목포 한양립스더 포레'는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